

법정스님 떠나시다

스님, 연꽃으로 다시 피소서

■ '무소유' 법정스님 입적

"일체의 장례의식 하지 말라" 13일 송광사에서 다비식 거행 전주교 등 종교계 애도 불결

양행도 기자 ranbi@donga.com

'무소유'의 큰 스승 법정 스님(78)이 11일 오후 1시51분께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55세.

법정 스님은 2007년부터 폐암으로 투병 해왔으며, 지난해 4월19일 길상사에서 열린 봄 정기법회에서 법문을 한 것이 대중 앞에 선 마지막 모습이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제주도에서 요양을 했으나 올해 들어 병세가 악화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입적 직전인 11일 낮 자신이 창건한 길상사로 옮겨 마지막 길을 준비했다.

법정 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팔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하달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말을 남겼다.

조계종과 법정 스님의 출가 본사인 전남 순천 송광사, 길상사 등은 평소 "일체의 장례의식을 거행하지 마라"고 말해온 스님의 뜻에 따라 별다른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13일 오전 11시 송광사에서 다비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송광사 문중의 다비준비위원회(위원장 진화스님)가 다비식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으며 길상사, 송광사, 송광사 불일암 등 3곳에 간소한 분향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화, 부의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

1932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법정 스님(속명 박재철)은 목포상고를 거쳐 전남 대산대 3학년 때 당대의 선승 효봉 스님을 만나 머리를 깎았다. 이후 1959년 3월 양산 통도사에서 자운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1975년부터 17년간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수행했으며, 1976년 4월 대표적인 산문집 '무소유'를 출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2년부터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기거하며 외부접촉을 자제했으나 1996년 서울 성북동의 요정 대원각을 기부받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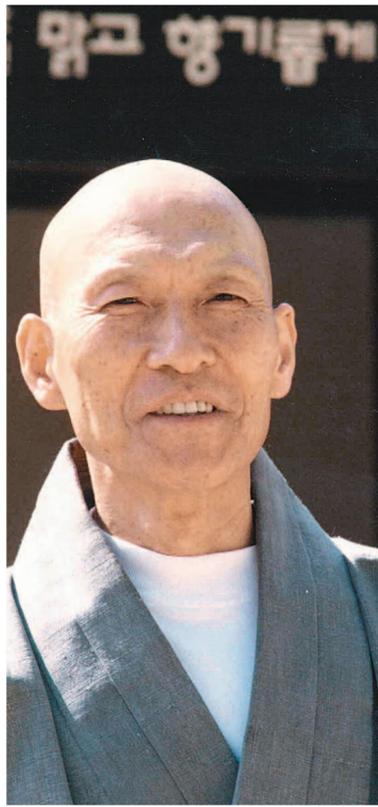
듬해 12월 길상사를 개원하면서 정기적으로 대중법문을 베풀었다.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했던 법정스님은 '무소유' 외에도 '영혼의 모음', '서 있는 사람들', '말과 침묵', '텅 빈 중만', '버리고 떠나기', '산에는 꽃이 피네' 등 불교적인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펴내 불교 신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생전 종교를 떠나 폭넓은 교류를 나눴던 스님의 입적 소식에 각계각층 인사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정진석 전주교 추기경은 "법정 스님의 원적은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슬픔"이라는 메시지를 조계원 총무원에 보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은 법정 스님에게 수행력과 법을 갖춘 큰스님에게 주는 최고의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기로 했다. 법정스님의 법구는 12일 정오 길상사를 출발해 순천 송광사로 향한다.

▶ 생전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긴 법정 스님. 입적을 앞두고 스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말을 남겼다. 스포츠동아 DB



■ 김제동 김주하 등 방송가 추모 잇따라

"종교의 벽도 넘은 무소유"

11일 법정 스님의 입적 소식이 연예계에도 잇따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트위터의 유저 네임을 '금강경'으로 쓸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인 방송인 김제동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정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방안에 틀어놓은 달빛도 손님이 듯하여 가만히 보셨다는 스님의 말씀이 아직 가슴에 뛰는데 조금 먼 곳에서 더 가까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려나 봅니다. 또 한 분을 눈에서 보내드리고 가슴에 모셔야겠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라는 글을 남겼다.

또 MBC 김주하 앵커도 트위터에 "진심을 담은 탁월한 문장력과 '무소유'와 '버리고 떠나기'를 실천으로 가르쳐주신 법정스님. 고 김수환 추기경님과 종교의 벽을 넘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큰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편안히 내려 놓으시길 기도드립니다"고 전했다.

탈린트 정보사는 트위터에 "제게 삶의 한 지점을 주신 분인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업적을 공덕 삼아 왕생 극락하소서"라고 추모했다.

한편 MBC는 법정 스님을 추모하는 특집 방송 'MBC 스페셜-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12일 오후 10시55분에 방송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무소유, 단순함과 간소함, 홀로 있음, 침묵 등을 이야기했던 법정 스님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돌아보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 위한 화면해설방송 KBS 02) 781-1800 MBC 02) 780-0015 SBS 02) 2113-5000 OBS 032) 670-5000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TV channels (KBS1, KBS2, MBC, SBS, OBS) and time slots, listing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스카이라이프 1588-3002,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02-735-6511

Table with columns for TV channels (YTN, OCN, MBC드라마, Ystar, KBS N 스포츠, 디스커버리 채널, 투니버스, 올리브) and program listings.

Ranking News section featuring a list of 10 musical and opera performances with details on location and dates.

Weather section show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and a table of daily weather.

Sports Donga section containing a table of sports results, a weather forecas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website.